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감사

존경하는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환대해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문의 감회는 매우 큽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척집에 온 것 같습니다. 20만 고려인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의는 그만큼 각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경제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해 7%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역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각하와의 정상회담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번에 채택한 공동성명과 여러 협정은 양국 간 실질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원개발협력약정으로 양국이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드라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하께서도 세 차례나 방한해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양국이 수교 13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우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의 고향인 사마르칸드 아프로시아 벽화에는 1,300여 년 전 이곳을 찾은 한국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사마르칸드 방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 각하,

70년 전 이 땅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우즈베키스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